연간기획 | 國利民福: 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

Ⅲ. 자유민주주의와 국리민복 가치 추구 ② 양극화와 가짜뉴스

양극화와 가짜뉴스

◇ 연 재 순 서 ◇

Ⅰ. 자유민주주의의 기원과 특성
Ⅱ.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전개와 특성 ①, ②
Ⅲ. 자유민주주의와 국리민복 가치 추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Ⅳ. 시민교육과 한국자유총연맹의 역할

‘끼리끼리’ 문화의 극단화와 정파적 양극화는 진실 왜곡하는 가짜뉴스 확산과 확증 편향의 원인

현실적으로 사회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사회 갈등이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갈등 자체는 매우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갈등은 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문제는 사회 갈등 그 자체보다 사회 갈등의 전개 양상, 그리고 사회 갈등에 대한 합리적 관리와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갈등은 생산적이라기보다 소모적이며, 대안 간 경쟁적이라기보다 적대적이며, 미래지향적이기보다 과거 지향의 퇴행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사회적 분열이 ‘끼리끼리’의 문화를 촉진하고 그 이외의 집단과는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끼리끼리’의 문화와 그로 인한 외부 집단이나 이질적 가치에 대한 배제는 동질적 집단 내부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사회의 통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연구가 선스타인(Sunstein 2009)의 연구이다. 선스타인은 집단 극단화(group polarization)가 발생하는 원인을 ‘끼리끼리(like minded people)’ 집단 활동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집단에 속하게 되면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것이다. 자기와 생각이 같은 집단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배타적으로 의견과 정보의 습득과 교환이 일어나면 자기 확증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 내에서는 자기의 견해와 다른 의견은 배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함께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매우 제한적이고 편향된 견해가 논의되는 것이다. 즉, 이러한 집단 내에서의 논의는 집단구성원들이 가진 비슷한 의견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반향실(echo chamber)’의 역할을 해서 그들이 공유하는 신념과 우려가 증폭되고 결국은 타인이나 타 집단에 대한 배제나 증오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무시하게 되고, 자기의 주장만이 옳고 논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기존 시각과 태도를 ‘편향동화(biased assimilation)’로 인해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강한 애착과 동시에 외부 집단에 대한 혐오나 증오가 생겨나게 되고 사회는 극단적인 집단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스타인의 주장은 우리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념적이거나 정파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에서 각 보수나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의견을 나누거나 유사한 성향의 언론매체만을 접하며 사회적 관계망 역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끼리만 연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끼리끼리’의 문화가 보다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고 때때로 근거 없는 정보를 확산시키는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명명백백한 가짜뉴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내용이라는 사실 유무와 무관하게 그 정보를 수용하고 또 확산시키려고 한다. 가짜뉴스를 만든 이들 뒤에서 이와 같이 기꺼이 그 가짜뉴스를 수용하고 확산시키고 싶어 하는 극단화된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 이념의 양극화로 인해 각 집단에 속한 이들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확증 편향과 듣고 싶고 믿고 싶은 정보만을 원하는 선택적 노출 경향이 더 강화된 것이 가짜뉴스 확산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꼽았던 탈진실(post truth)라는 개념이 암시하듯, ‘객관적 사실’ 자체보다 ‘감정과 개인 신념에 대한 호소’가 여론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내가 믿고 싶은 것이라면 사실 여부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 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실제 경험적 분석 결과에서도 정치적 이견을 피하고 동질적인 ‘끼리끼리’의 집단에서 가짜뉴스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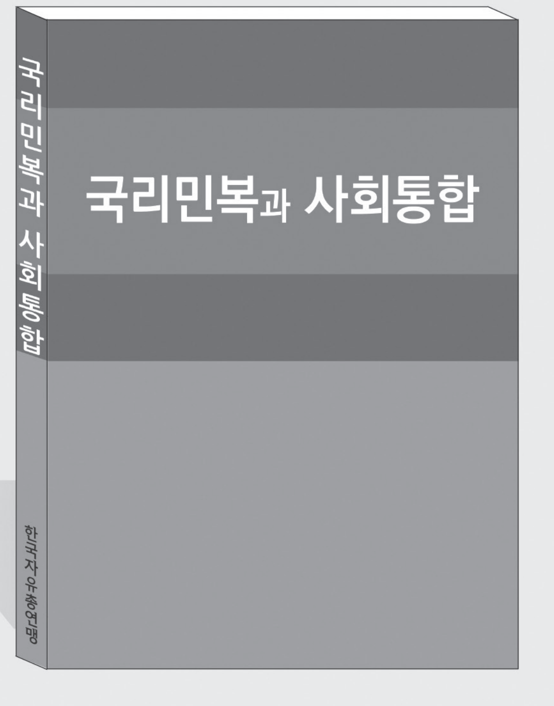
이러한 극단주의, 그리고 가짜뉴스의 횡행은 사회적 불신과 갈등, 대립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국가 발전이나 사회 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러한 극단화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다양성, 다원주의에 대한 존중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 속한 이들의 의견에만 동조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견해는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게 되는 것이다.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이성과 판단을 중시하고,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려는 자유주의적 가치가 태도의 양극화와 가짜뉴스의 횡행을 막기 위해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강원택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 책이 자유주의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종환 총재의 〈책을 펴내며〉 중에서

국리민복과 사회통합



목차
① 국리민복(國利民福) – 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
② 일상생활에서 자유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시민교육
③ 탈진실(Post-Truth), 가짜뉴스 그리고 민주주의
④ 국리민복과 평화통일교육 :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기초로
⑤ 국리민복 가치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개선방안 : 다문화 교육

발행인 박종환
저 자 강원택 외 4인
발행일 2019년 11월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